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지난주 등록교우 : 이원우 성도, 임미선 성도(목장편성 잠시 보류)
3. 새해 '축복의 가정심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방 받으시는 가정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2/22) 청소담당은 키크리스탄 목장(신동기 집사)에서, 다음 주일(2/23)식사담당은 에스더 목장(오효근 권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월 추천도서 <5가지 친밀한 관계> <참소자를 잠잠케 하라> <하나님을 열망하라> 이상 3권이 2층 예향카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6. 다음 주일은 목장주일입니다. 목자들은 잘 준비해서 빠짐없이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 시에 드러지는 헌금은 본 재정으로 드리고, 향후 문서선교비로 사용하겠습니다.
7.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교육을 지난주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교역자사무실(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가집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2월 16일	2월 23일	3월 1일	3월 8일
예배기도(오전)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박성대 집사	이준화 집사
예배기도(오후)		이연미 권사	목장주일	유명자 권사	정진숙 권사
주일식사담당		호산나 목장 (강숙여 권사)	에스더 목장 (오효근 권사)	양떼 목장 (황희용 권사)	헵시바 목장 (김금옥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크리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교회학교(유치아동부, 중 고 학생부, 청년부)와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3. 마을 전도팀을 위해서, 새해 축복의 가정심방을 위해서
4. 이창희 권사님, 권용기 집사님, 정옥례 권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종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 인 도 자  
 \*성시교독 ..... 교독문 10번(시 16:1-8) ..... 다 갈 이  
 \*경배찬송 ..... 20장(통 41장) ..... 다 갈 이  
 \*참회기도 ..... 다 갈 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갈 이

찬양과 기도

찬 송 ..... 302장(통 408장) ..... 다 갈 이  
 대표기도 ..... 이현호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 삼상 17:41-49 ..... 인 도 자  
 자녀를 위한기도 .....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 인 도 자  
 말씀선포 ..... '믿음, 그것이 출구입니다' .....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 인 도 자  
 \*결단송 ..... 620장 ..... 다 갈 이  
 \*축 도 .....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서 3장 17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김묘상 목사

경배와 찬양 ..... 찬양인도 : 아도나이 ..... 다 갈 이  
 묵상기도 ..... 은혜를 구하며 ..... 다 갈 이  
 찬 송 ..... 205장(통 236장) ..... 다 갈 이  
 기도 ..... 이연미 권사  
 특별찬양 ..... 누구든지  
 성경봉독 ..... 롬 8:28 ..... 인 도 자  
 말씀선포 .....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 김묘상 목사  
 기도 ..... 김묘상 목사  
 교회소식 ..... 인 도 자  
 찬 송 ..... '축복의 사람' ..... 다 갈 이  
 축 도 ..... 김묘상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7) 허영진 목사  
 롬 2:1-16 '순전한 복음을 위해'(2)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기도, 올바른 과녁을 위해 쏘라'

새벽기도회 새벽 5:30 주현절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내려가는 길, 힘을 빼자

하루는 교회 목양실에 있는 CCTV 2번 채널이 부영계 흐려졌다. 가끔씩 보는 것이긴 해도, 무언가에 의해 방해 받아 선명도가 떨어진 것 같아 약간 신경 쓰이지 않았다. 문제를 찾아 체크를 해보니 CC카메라 렌즈에 이물질이 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7m 높이의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야만 한다. 평일 한낮인지라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혼자 해결해야만 했다. 사다리를 가져다 놓고는 조금 불안하긴 해도 전신주를 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기껏해야 사다리 높이는 2m 남짓, 그 다음부터는 전신주에 박혀있는 고정 못을 발판삼아 올라야 한다. 그렇게 CC카메라를 향해 위만 바라보고 힘겹게 오르다보니 어느새 CC카메라가 손에 잡혔다. 가져간 깨끗한 수건으로 열심히 닦았다.

부영던 렌즈가 깨끗해지면서 좋은 기분도 잠시,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위만 쳐다보고 올랐는데 다시 내려가기 위해 아래를 보니, 아뵘, 저 밑 지면이 그렇게 아찔해 보이지 않는가. 두려움이 엄습했다. 손은 어느 사이 전신주 고정 못을 꼭 쥐고 있었다. 내려 가야하는데 꼭 쥐 손 때문에 동시에 발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기도가 나왔다. "주님, 내려가야 하는데 주변엔 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저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담대함을 주셔서 안전하게 내려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 덕분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아래를 보지 않고 잔뜩 힘이 들어간 꼭 쥐 손을 놓으니 비로소 다리를 뺄 수 있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생각으로 인해 맞게 될 결과를 상상해 본다면 지금의 생각을,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들인 자신의 수고와 노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하지만 엄밀히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즉,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언제나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다'고 했다. 이는 자연의 신비이자, 신앙의 신비다. 이렇듯, 우리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신의 힘을 빼자, 그럴 때, 비로소 내려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Written by 허영진